

심상공경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일상에 쫓겨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발버둥치며 욕망으로 괴로워 할 때 우리는 자주 "마음을 비워야지"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림을 통해서 자

자유 향한 끊임없는 물음은 새가 되고 꽃이 되고

버리는 것과 달리, 예술은 늘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작가 내면의 무계만큼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 한다. 색채를 많이 사용하는 나는 늘 그것이 속되지 않을까, 탐미에 흐르지 않을까 고민한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일만큼 추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절제하려 애 쓴다. 마음을 달여내고, 화연을 달여 내는 일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인 것 같다. 마음속에 던져지는 끊임 없는 물음들을, 어찌어찌... 어색하게 풀어 가려 하지만, 아직 어설픈 모습을 정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던져진 내 자신이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기만치 세상 속의 새를 들여다 보고, 들뜬 꽃들을 바라 보면서, 울고 혼다는데... 흑 나와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색다른 감상에 젖어 본다. 나의 조형언어를 찾는 일은 내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침잠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 함이다. 새장속에 갇힌 새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장인의 새인가. 내속에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물음을 나는 그린다.

임연숙 (서양화가)

폭풍이 지난 들에 핀 꽃 ③

주부신행담

수역사에 도착해서 저녁 예불이 지나서야 그 곳 주지스님과 대면할 수 있었다. 처음 수역사를 대하는 인상이 전혀 낯설지도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푸근한 마음이 생겼다. 인자하게 생기신 주지스님은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난 후 한달간 기도를 하라며 팔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시며 자상하게 불교에 대해서 이것

조개사를 혼자 다니다가 도반을 만나게 돼 구과발 홍국사를 다니며 합당한 임원, 홍국사보 편집장을 하면서 계속 신앙을 키워왔다. 하루는 왼쪽 앞구리가 심하게 아파움을 느끼면서도 그냥 참다가 어느날 병원을 노크했다. 아픔을 의사에게 호소하자 의사는 X-레이를 찍자고 하더니 사진촬영을 끝내자 나에게

크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지나가 버린 것이다. 나는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맞이하고 되뇌이면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녹막염이 나를 정도면 결핵이든 다른 병이든 모든 게 나왔으리라는 자산이었다. 계속 절을 찾아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머리를 받다가 여름 지나고 시원해지면 받기로 하고 그만 두었다. 병원치료를 받으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울까, 하루는 꿈을 꾸는 데 스님 색본이 나타나셨다. 가운데 붉은 눈이 커다란 데 다른 두 분은 얼굴이 기억나질 않는다. 나는 꿈에서도 스님들을 봤자 얼뜨려 질렀다. 가운데 스님이 나를 보고는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것이었다. 내가 왼쪽 다리를 가리켰더니 가운데 스님은 옆에 계신 다른 스님을 보고 '저 보살 아픈 곳을 낮게 해주라'하시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가지고 온 불전이 하나도 없는데'하면서 어리둥절해 하다가 잠이 들었다. 너무나 분명하고 희한한 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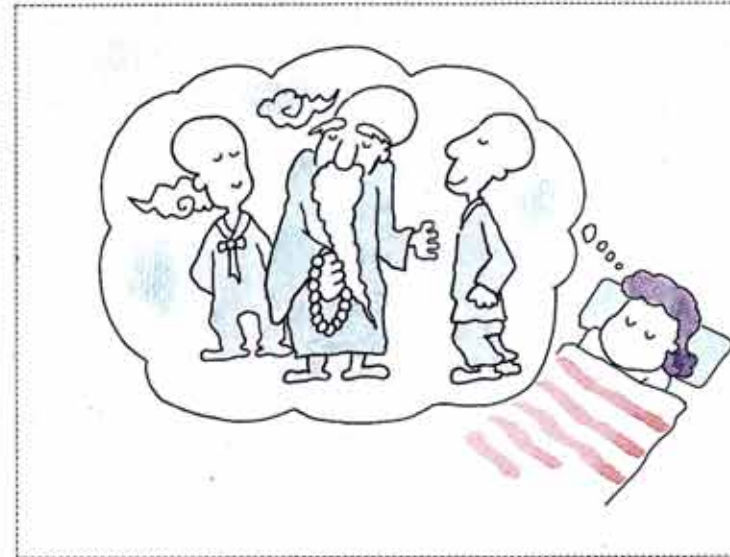
꿈에서 깨어나서도 식은 땀이 흘렀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왼쪽다리를 쫓다 구부렸다 해보았다. 다리가 아파서 퍼지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거짓말 같게도 다리가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무렸다 쫓다 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신기해서 나는 남편을 깨워 다 나온 다리를 보였었다. 남편도 다리 아파 밤마다 궁궁대인 나를 신기해 하며 다리를 지켜보았다. 나는 이토록 신앙생활을 하며 남다른 많은 가피를 입었다. 글로 다 쓸 수 없는 많은 가피를 말았다.

그러나 늘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오는 업이 있기 때문에 가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한다. 열심히 살려고 하던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두번재로 또 터졌다.

김묘명심 (과주 보공사)

신앙생활을 하다보니 내 몸에 들어온 녹막염이 고통도 주지 않은 채 자연히 치유됐다 나는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되뇌었다



저것 말씀해 주셨다. '일주일도 못가서 집에 가고 싶을거야' 하였던 주지스님이 지금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맡고 계신 설경스님이시다. 불교와 안연 맺고 처음으로 대한 스님이다. 한달간 있으면서 나는 사본 장군을 빼놓지 않았으며 새벽예불이 너무 좋아서 한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때 부전스님으로 계셨던 수암스님의 가르침대로 천수경, 반야심경, 지심귀명례를 다 외었다. 정혜사에 올라가서는 틈나는대로 그림을 그렸다. 계속 사이를 오르내리며 그때 외었던 기도본들이 지금까지도 내 중심에 언제나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달을 보내고 집에 와서도 아침 새벽예불을 거르지 않고 천수경, 반야심경, 관음경, 때로는 108배 대불정능삼부주, 금강경 등 닥치는 대로 열심히 외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읽던 금강경은 어느새 환희심이 일고 열심히 읽게 되어 지금은 한번 외우는데 9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악이백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가끔 중얼중얼 읊조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녹막염이 다 나아서 상처가 아물었습니다'고 하면서 사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나는 녹막염을 알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

데 왼쪽 무릎이 아파오게 되었다. 아마 팔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고 자 가진단하다가 정형외과를 찾았다. 무릎 관절염인 것 같다고 물리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라고 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저 오는 업이 있기 때문에 가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한다. 열심히 살려고 하던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두번재로 또 터졌다.

팔리어로 Suta는 경전, Nipata는 모음(集)이란 의미이다. 그러므로 스타나피타(Sutanipata)란 곧 경전을 말한다. 스타나피타의 구성은 사품(蛇品), 소품(小品), 대품(大品), 의품(義品), 피안도품(彼岸道品)의 5장으로 되어 있다. 사품(蛇品)은 12개의 경을 수록, 수행자는 뱀이 제 낀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차안과 피안을 다 버린다는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소품은 짧은 14개의 경을, 대품은 비교적 긴 11개의 경을 수록하고 있다. 의품은 원어인 Athakavagga에 따라 팔계품(八

URAGAVAGGA(蛇品) 1.URAGASUTTA(蛇經)

He who restrains anger when it has arisen, as they by medicines restrain the poison of the snake spreading in the body,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악으로 뱀의 독이 풀려 버리는 것을 막듯, 화가 일어날 때 억제하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낀은 허물을 벗듯.

영어로 배우는 경전 스타나피타 ①

허물을 벗듯.

He who has cut off passion entirely, as they out of the lotus-flower growing in a lake, after diving into the water,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연못에서 자라는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꾸듯, 애욕을 완전히 끊은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낀은 허물을 벗듯.

영어로 배우는 경전 스타나피타 ②

He who has cut off craving entirely, the flowing, the quickly running, after drying it up,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넘쳐 흐르는 갈래의 물살을 완전히 말려버린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낀은 허물을 벗듯.

He who has destroyed arrogance entirely, as the flood destroys a very frail bridge of reeds,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영어로 배우는 경전 스타나피타 ③

홍수가 연약한 갈대 다리를 부수듯 교만을 완전히 없앤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낀은 허물을 벗듯.

Bhikkhu 수행자 (팔리어) 한명우 기자

개회동선

캐나다 밴쿠버 서가사 태응스님 주지 진산식



지난 11일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서가사에서 태응스님 (불교TV 대표이사)이 주지로 취임, 진산식이 봉행됐다. 서가사는 1년 전 밴쿠버로 이민 간 불자들이 사찰이 없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불자들이 힘을 모아 창설한 사찰. 처음에는 1백여명의 신도들로 시작하여, 지금은 2백여명 350가구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포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날 진산식에서 태응스님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법당이다"며 "후손들에게 불교를 알게하여 불법을 널리 퍼 지역에도 불교를 꽃피우자"고 말했다.

교리와 세속관념 차이 불교가 가장 적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주요 종교 가운데 불교교리가 오늘날의 세속적인 관념(영국인의 정서 기준)과 가장 차이가 적고 이에 반해 카톨릭이 가장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펜던트지에서 영국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세속관념과 종교교리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보도한 항목은 △신에 대한 모독 △종교 행사 무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혼전 성관계 △동성애 △이혼 △자위행위 △자살 △동물학대 등 12가지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의 교리와 세속적인 관념이 서로 일치되어 '살뚫은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한 모독 종교 행사 무시에 대해서는 불교와 세속적인 관념이 '해가 안된다'고 인정하는 반면 나머지 모든 종교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불교가 세속적 관념과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자살에 관한 것으로 자살이 있을 수 있다는 세속적 관념에 반해 불교는 해악이 된다고 했다. 남수미 기자

Advertisement for Hyosung Industries Co., Ltd. featuring the slogan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The engine of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 Hyosung Heavy Industry). It lists various industrial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power generation equipment, machinery, and automation systems. The ad includes images of industrial machinery and a stylized figure representing progress.